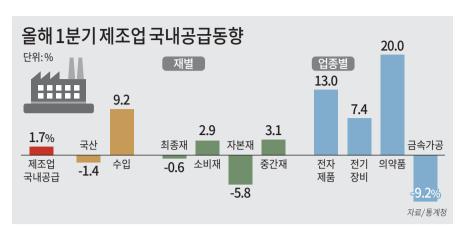
올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증가… 수입 비중 '역대 최고'

통계청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전자제품 등 수입 공급 9.2% ▮ 車 생산 원활하지 않아 공급 감소

전자제품, 전기장비 등 수입 제품이 늘면서 올해 1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 제조업 제품 공급 중 수입이 차 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였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107.4로 작년 동기(105.6) 대비 1.7% 올 랐다.

내수동향을나타내는제조업국내공 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



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금액을 지수화 한 것을 말한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1분 기(3.4%), 2분기(9.1%), 3분기 (1.9%), 4분기(3.6%)에 이어 5개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들 어서는 국산 공급이 1.4% 감소했지만 수입 공급이 9.2% 증가하면서 전체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도 늘어났 다.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동기 대비 2.3% 포인트 높아진 30.8%를 기록했다. 이 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

빈현준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제 조업 국내 공급은 5분기 연속 증가했지 만 증가 폭은 둔화했다"며 "국산 공급 감소가 아쉽지만 여전히 1분기까지는 괜찮은 편이고, 다만 국내에서 차지하 는 제조업 제품 중 수입 비중이 증가했 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국산 공급은 금속가공과 자동차 등이 줄며 1.4% 감 소했다. 지난해 3분기(-2.7%), 4분기 (-0.9%)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 어지고 있다. 수입 공급은 전자제품과 전기장비 등이 늘어 9.2% 증가했지만,

지난해 두 자릿수 증가율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줄었다.

빈 과장은 "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공 급망 불안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중국의 봉쇄조치로 협 력업체 가동이 중지돼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이 줄었다"고 설명 했다.

이어 "전자제품은 반도체 수입이 많 이 증가한 영향이 큰데,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노트북・휴대폰 제조와 서버 증설 과정 등에서 필요하다 보니 많이 수입된 것 같다"며 "전기장비는 전기차 용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 다"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i

3월 경상수지 67.3억 달러… 23개월째 흑자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 줄어 수출보다 수입 증가 속도 빨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수출호조에 2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 만 흑자폭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수지는 흑 자 전환했지만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 지가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경상수 지는 6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이후 23개월째 흑자다.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은 7억7000만달러 축 소됐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국제유 가가 크게 급등하자 수출보다 수입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다.

상품수지는 흑자규모는 53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78억5000만달러) 대 비 25억4000만달러 줄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3억5000만 달러 확대된 645억1000만달러다. 석유 제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호조를 보



이며 전년 동월 대비 17개월 연속 오름 세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18억8000만 달러 증가한 592억달러다. 원자재 수입 이 급증하면서 1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원자재, 자본재 및 소비재 수 입이 각각 52.3%, 6.4%, 8.4% 증가했

서비스수지는 3억6000만달러로 전 년 동월 11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돌 아섰다. 운송수지 호조 등에 따른 영향 이다.

본원소득수지는 11억5000만달러 흑 자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배당 지급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 흑자폭이 1억4000만달러 축소됐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53억7000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91억1000만달러증가했으며,지 난 2021년 12월 120억6000만달러에 이 어 역대 2위 수준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환경부, 용인 서천에 생태수로 설치

생태수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악취가 심했던 경기도 용인 서천에 생태수로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2년도 생태수로 시범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용인 서천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 다. 환경부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주변 여유 공간에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생 태수로를 조성해 방류수 수질개선, 생 물서식처 제공 등을 할 계획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용인 서천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하수처리 시설용량이 하루 7800㎡에 달한다. 인근 행정구역 인구 가 약 70만명으로 도심에 위치했다.

비가 내리면 도시 내 발생하는 비점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와 함 께 반정천으로 흘러들어 악취 관련 민 원이 잦았던 곳이다.

생태수로가 설치되면 방류 하천의 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게 환경부 설 명이다.

아울러 생물서식처 확대, 인근 소하 천과의 연결성 확보를 통한 수생태 복 원, 경관 개선 및 지역 주민 생태공간 제 공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생태수로 시범사업에 국비 3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오 는 2024년까지 총 6곳에 생태수로 설치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환 경기초시설 방류수가 배출되는 하천 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게는 일상생활 속 생태공간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친환경 기반 시설' 사업으 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일 '세계 식물건강의 날'

UN 지정 추진… 지난 3월 최종 결정

우리나라가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한 국제기구가 지정을 추진한 '세계 식물 건강의 날(5월12일)'이 올해 첫 기념일 을 맞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올해 제76 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매년 5월 12일을 '세계 식물건강의 날'로 최종 지 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검역 국제 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주 도해 'Protecting Plants, Protecting Life'란주제로UN 지정을추진해왔으 며, 올해 3월 최종 결정됐다. 우리나라 를 비롯해 184개 회원국을 가진 UN 산 하 국제기구로 농산물 무역을 통한 식 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의 이행을 지원한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량 공급을 위한 식물건강의 중요성 인식 확대 ▲ 국가 간 식물병해충 전파 최소화 ▲식 물 건강에 대한 혁신•연구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지속 추진돼 왔다.

지구상 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80%를 차지하며 우리가 숨 쉬는 산소 의 98%를 생산한다. 하지만 세계적으 로 매년 식량작물의 약 40%가 병해충 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유엔식량 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농산물 무역 손실액은 2200억달러 에 이른다.

'식물건강(Plant Health)'이란 병해 충, 특히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 피해를 예방하는 개념이다. 현 재 우리가 방제에 힘쓰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이나 화상병 같은 사례에서 보듯 외국에서 유입된 병해충은 막대한 피해



수입 화훼류 검역 현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를 입히지만 박멸은 매우 어려운 상황

식물건강은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우 리 식물을 지키는 국경검역에서 시작되 며 검역본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다. 그 러나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 억제에 효과적인 식물검역에 대한 투자와 인식 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 지정을 계기로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물 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 원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부 지원' 4번째 외투기업 연구소 준공

이차전지 소재 기업 '유미코아사'

정부 지원을 받는 4번째 외국인투자 기업의 연구소가 천안에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투자정책관 은 10일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유미코아사의 충남 천안 소재 이차전 지소재 중앙기술 연구소 준공식에 참 석했다. 준공식에는 랄프 키슬링 유미 코아 그룹 부회장, 패트릭 잉글버트 주 한 벨기에대사관 공관차석, 크리스토 프 하이더 유럽상공회의소 총장, 정순 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 석했다.

벨기에 기업인 유미코아사는 1999년 이후 한국 투자를 시작해 국내 첫 이차 전지용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 지금 까지 약 1000여명 고용을 창출했다.

정부는 국내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기 업의 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으 며, 이번에 준공한 연구소는 정부지원 을 받은 4번째 외투기업 부설 연구소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는 유미코 아사가 아시아 허브이자 글로벌 최대 규모로 구축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소재 연구개발 시설로, 2021년~2025년 까지 5년간 총 360억원의 투자가 이뤄 지고, 1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예정 이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유미코아가 외 투기업으로서 그 동안 국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제조공장에 이 어 세계최대 연구소를 한국에 준공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